

고종의 정책들에 대한 평가

특히 군주론의 관점에서

20200422 이수빈

고종은 국내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번번이 외세를 끌어들이며 해결하려 했다. 이러한 “강대국 편승 전략”에 대해 평가는 꽤 양극적으로 갈린다. 제국주의 서양 열강의 위협 하에서 나름 잘 대처했다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이제부터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근거로 고종이 무능한 군주였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척화파의 지지를 받던 흥선대원군은 1873년에 탄핵된 이후, 1882년에 발생한 임오군란을 통해 재집권을 노렸다. 임오군란을 일으킨 구식군인들의 최종 목표는 개화파의 민씨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임오군란은 결과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을 성공시켰지만, 청군이 원병으로 오면서 임오군란은 금세 진압되고 청과 결탁한 민씨 정권이 정권을 이어갔다. 이는 **“파벌로 얼룩진 도시는 적군에게 위협을 받으면 쉽게 무너진다. 그 이유는 세력이 약한 파벌은 항상 침략자와 결탁하는 데에 반해 다른 파벌은 이를 저지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 라는 군주론의 구절과 맞물린다. 민씨 정권은 위협 속에서 외세인 청과 결탁했고 구식군인들과 흥선대원군은 청을 저지할 만큼 강력하지 못해 오히려 제압당했다. 군주론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결국 가까운 미래에 국가가 “쉽게 무너지게” 만든다.

임오군란의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지만 조선의 원병 요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조선의 내부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청에 원병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군주론에서는 **“원군은 그 자체로서는 유능하고 효과적이지만 원군에 의존하는 자에게 거의 항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패배하면 당신은 몰락할 것이고, 그들이 승리하면 당신은 그들의 처분에 맡겨지기 때문이다.”**²⁾ 라고 말한다. 상황은 군주론의 구절 그대로 전개되었다. 원군에 의존하던 고종은 결국 조선에 청군과 일본군이 모두 주둔하게 만들었고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후 1910년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물론 고종은 한국이 식민지가 되도록 손놓고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결탁한 것을 들 수 있다. 러시아라는 새로운 외세가 청과 일본의 내정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서양 열강의 침략 전쟁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주론은 **“결코 강력한 세력과 자발적인 동맹을 맺지 말라. (중략) 만약 당신이 그와 함께 승리를 거두면, 당신은 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니, 군주란 모름지기 다른 세력의 처분에 맡겨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³⁾ 라고 말한다. 끊임없이 외세의 도움을 요청하던 조선 역시 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다른 서양 열강들의 처분에 그 운명이 맡겨졌다.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파천을 감행한 고종은 결국 조선의 수많은 권리들을 서양 열강에 넘겨주며 중립국으로서 연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주론은 또다시 **“군주는 그가 진정한 동맹이거나 공공연한 적이면, 곧 그가 주저하지 않고 한 군주를 다른 군주에 반대하여 지지하면, 높은 존경을 받는다. 이 정책은**

1) 마키아벨리. 『군주론』. page 147.

2) 마키아벨리. 『군주론』. page 94.

3) 마키아벨리. 『군주론』. page 157.

항상 중립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중략) 서로 싸우는 군주들이 당신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경우,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당신은 승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⁴⁾ 라고 했다. 여기서 승자는 청도, 러시아도, 다른 서양 열강도 아닌 일본이었다. 고종은 환궁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뒤늦게 광무개혁을 감행했지만 그로부터 약 10년 뒤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은 국가 이권을 통째로 빼앗기고 말았다.

홍선대원군 탄핵 이후 채 50년도 되지 않아 고종은 조선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 물론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와 청, 일본의 끊임없는 내정 간섭 속에서 고종은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군주론에 따르면 그 모든 정책들은 국가의 자주적인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권리를 외세에 내주고 있던 꼴이었다. 따라서 고종과 그의 외교전략은 매우 비판받을 만하다.

4) 마키아벨리. 『군주론』. page 155.